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장애인을 위한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
문화·관광 -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이탈리아 고유 화훼
브랜드 런칭
사회·복지 -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입양하는 고양이 공원

환경·안전 - 전기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못 싣게 하는 이유
도시계획·주택 - 문화유산과 과학의 만남을 통한 도심공원의
재탄생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장애인을 위한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

일본 / 사회·복지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물(배리어)의 제거를 요청할 때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현재까지 ‘합리적 배려 제공’은 행정기관에겐 의무사항이고 사업자에겐 권고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4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도 의무사항으로 변경됨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 ‘합리적 배려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물의 제거를 요청할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제공되는 설비나 서비스 등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음
 - 이는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 내각부는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사무/사업의 목적, 내용, 기능에 비추어 아래 3개 항목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소개
 - 첫째, 필요한 범위에서 본래 업무에 부가되는 것
 - 둘째,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비교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것
 - 셋째, 사무/사업의 목적, 내용, 기능의 본질적인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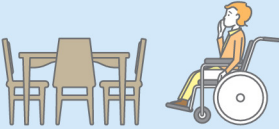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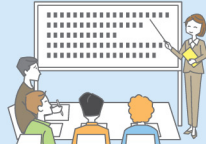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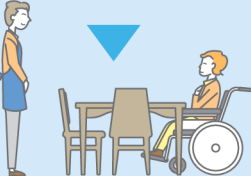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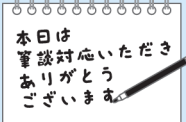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인 예시

- 내각부는 공식 사이트에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 예시 데이터집’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위한 대응에 참고할 것을 당부
-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예: 지체장애)
 - 음식점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그대로 착석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음식점 측은 책상에 비치된 기존 의자를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의사소통에 대한 배려(예: 약시·난청장애)
 - 난청이 있는 장애인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요청하면 적절한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 규칙 및 관행의 유연한 변경을 통한 배려(예: 학습장애)
 - 촬영 금지된 강의나 세미나에 학습장애인이 참석했을 때는 문자를 읽고 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배려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촬영 허락

合理的配慮の具体例

※合理的配慮の内容は個別の場面に応じて異なるものになりますので、以下の例はあらゆる事業者が必ずしも実施するものではないこと、また以下の例以外であっても合理的配慮に該当するものがあることに留意しましょう。

物理的環境への配慮 (例：肢体不自由)	意思疎通への配慮 (例：弱視難聴)	ルール・慣行の柔軟な変更 (例：学習障害)
 【障害のある人からの申出】 飲食店で車椅子のまま着席したい。	 【障害のある人からの申出】 難聴のため筆談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希望したが、弱視でもあるため細いペンや小さな文字では読みづらい。	 【障害のある人からの申出】 文字の読み書きに時間がかかるため、セミナーへ参加中にホワイトボードを最後まで書き写すことができない。
 【申出への対応（合理的配慮の提供）】 机に備え付けの椅子を片付けて、車椅子のまま着席できるスペースを確保した。	 【申出への対応（合理的配慮の提供）】 太いペンで大きな文字を書いて筆談を行った。	 【申出への対応（合理的配慮の提供）】 書き写す代わりに、デジタルカメラ、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型端末などで、ホワイトボードを撮影することとした。

[그림]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 예시 데이터집’의 샘플

(참고 :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_leaflet-r05.html)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에 반하지 않는 예시

- 음식점에서 개별적인 식사 케어를 요구했을 때 그 음식점은 이를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음
- 추첨으로 판매하는 한정 상품에 대해 추첨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 확보를 요구하면 이는 합리적 배려가 아니기에 거절할 수 있음
- 쇼핑몰이 혼잡할 때 시각장애인이 쇼핑몰 동반을 요구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알려드려 동반하거나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의 과제

- 일본 주식회사 카우넷은 회원 1,408명을 대상으로 ‘친숙한 다양성에 대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 배려 제공’을 ‘알고 있다’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20%이며, ‘들은 적은 있지만 별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36%로 조사됨
- 또한 ‘합리적 배려 제공’에 대해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들었던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약 30%로 적음
- 한편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약 70%로 나타남. 대부분 ‘합리적 배려 제공’에 긍정적인 만큼,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와 더불어 대중에게도 이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_leaflet-r05.html

<https://www.gov-online.go.jp/article/202402/entry-5611.html>

<https://smbiz.asahi.com/article/15086221#:~:text=%E5%90%88%E7%90%86%E7%9A%84%E9%85%8D%E6%85%AE%E3%81%AE%E6%8F%90%E4%BE%9B%E3%81%A8%E3%81%AF,-%E5%86%85%E9%96%A3%E5%BA%9C%E3%81%AB%E3%82%88%E3%82%8B&text=%E5%85%B7%E4%BD%93%E7%9A%84%E3%81%AB%E3%81%AF%E3%80%81%E8%A1%8C%E6%94%BF,%E6%B1%82%E3%82%81%E3%82%89%E3%82%8C%E3%82%8B%E3%81%A8%E3%81%84%E3%81%86%E3%82%82%E3%81%AE%E3%81%A7%E3%81%99%E3%80%82>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html>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58.000070957.html>

지속 가능한 농업 위해 이탈리아 고유 화훼 브랜드 런칭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문화·관광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이탈리아 농업 협회 및 화훼 단체와 협업하여 이탈리아 최초로 자국 꽃 브랜드를 런칭. 화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자기 땅의 가치를 음미하는 일상적인 꽃 문화를 창조하려는 노력

배경과 목적

- 토스카나주에서 원예 및 화훼 산업의 위치
 - 농업이 큰 두각을 나타내는 토스카나에서 화훼 산업은 발전이 더딘 분야
 - 화훼 재배 능력과 종사자들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꽃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다른 분야에 비해 시, 도 혹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브랜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토스카나주에는 약 300개의 농장이 있고 주 서쪽의 루까(Lucca), 비아레이지오(Viareggio), 피스토이아(Pistoia) 지역이 화훼 산업으로 유명함
 - 이탈리아 내에는 약 2만 7,000개의 화훼 농장과 약 20만 명의 화훼 종사자가 있음
- 토스카나주와 이탈리아 전국 농업 협회 및 화훼 전문가 모임의 협업
 -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 콜디레티(Coldiretti, Confederazione nazionale dei coltivatori diretti)는 1944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농업 단체
 - 전국 20개 주의 대표 사무소를 포함하여 시, 지역마다 소규모 단체가 활동. 전국에 약 4,000개의 사무소가 있으며 약 150만 명이 조합원
 - 화훼 생산자 및 플로리스트 협회 아피(Affi, l'Associazione Floricoltori e Fioristi Italiani)는 2020년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화훼 생산자, 교육자, 플로리스트가 함께 설립한 단체
 - 이탈리아 전역에 회원이 있으며 이탈리아 화훼 산업을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
 - 토스카나주는 두 협회(콜디레티, 아피)와 협업하여 이탈리아 최초의 자국 꽃 브랜드를 런칭하며 세계 무대에 데뷔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주요 내용

- 최초 화훼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 개요
 - 토스카나주는 이탈리아 최초의 꽃 브랜드 ‘피오리 이탈리아니(Fiori Italiani, 이탈리아의 꽃)’를 런칭
 - 이탈리아에서 가장 꽃 수요가 많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에 공식 콘퍼런스 개최
 - 토스카나의 약 300개 화훼 농장과 플로리스트, 화훼 교육자, 농업 협회 멤버들이 국제 시장에 이탈리아 화훼를 알리기 위해 수년간 연구하고 노력한 것이 맺은 결실
 - 이탈리아 화훼 산업은 약 3조 원의 시장 가치를 가진 산업
 - 꽃의 종류는 토스카나에서 생산되는 라넌큘러스, 데이지, 제비꽃, 아네모네, 카네이션, 튜립 등
 - 지속 가능한 산업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토스카나 땅에 맞는 꽃 종류와 재배 방법을 고수
 - 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행에 맞춘 화훼 재배는 지양(예: 장미)
 - 기념일과 행사 때 그 지역에서 생산된 꽃을 소비할 수 있도록 꽃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
 -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꽃의 소비로 자기 땅의 가치를 음미며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유지
 - 브랜드명은 ‘피오리 이탈리아니(이탈리아의 꽃) _ 창조자들이 만든 탁월함(Fiori italiani _ Eccellenza dai produttori nazionali)’
 - 토스카나주의 프로젝트지만 이탈리아 전역의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 브랜드 이름에 토스카나주가 아닌 이탈리아를 사용하기로 결정
 - 이탈리아 국가 이름으로 런칭하는 최초의 이탈리아 꽃 브랜드
 - 빨간색, 녹색, 흰색 활용한 디자인으로 이탈리아 국기 형상화하여 ‘메이드 인 이탈리아’ 상징
 - 네덜란드에 이미 수출 시작하여 성공적인 국제 무대 데뷔
 - 토스카나주의 서쪽 해안 베르실리아(Versilia)의 제비꽃과 유칼립투스를 새로운 시장인 북유럽에 수출 확정

정책 평가와 의의

- 꽃이라는 상품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산업 철학
 - 지속 가능한 농업 문화에 대한 확신
 - 유행을 따르는 화훼 문화가 아닌 고유한 땅에 맞는 품종 개발과 재배
 - 기념일, 결혼식 등 한 번 소비하고 버려지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재배되는 식물들을 감상하는 계기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화훼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공 비료를 덜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막아 ‘지구를 덜 피곤하게 하는’ 재배 방식에 있음에 모두 동의
- 세계 1위 화훼 산업국인 네덜란드에 수출을 시작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
 - ‘메이드 인 이탈리아’ 화훼가 큰 역할을 할 것과 화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크게 도약할 것을 기대



[그림] 토스카나주에서 런칭한 이탈리아 최초 꽃 브랜드 로고

<https://www.toscana-notizie.it/-/florovivaismo-debutta-il-marchio-fiori-italiani-creato-da-coldiretti-toscana-e-affi>

<https://www.cuoreeconomico.com/florovivaismo-debutta-il-marchio-fiori-italiani-creato-da-coldiretti-toscana-e-affi/>

<https://www.coldiretti.it/economia/nasce-lassociazione-floricoltori-e-fioristi-italiani-affi>

<https://www.lanazione.it/pistoia/cronaca/fiori-italiani-brand-tutto-toscano-un-marchio-per-piu-di-300-aziende-7b5e1ccd>

https://www.ansa.it/toscana/notizie/2024/02/14/nasce-il-marchio-fiori-italiani-per-le-produzioni-nazionali_1d605841-d8ba-4ebf-b2e7-afbbe1a4899f.html

<https://www.intoscana.it/it/fiori-italiani-nasce-il-brand-per-esportare-il-florovivaismo/>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고 입양하는 고양이 공원

말레이시아 슬랑고르주 / 사회·복지

세팡시의회(Sepang Municipal Council)는 유기묘 보호·입양과 시민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Taman Kucing Cyberjaya)을 운영

정책 배경

- 동물 보호 인식이 비교적 높은 국가
 - 세계 동물 보호 협회(World Animal Protection International, WAPI)의 동물 보호 지수(Animal Protection Index, API)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C’ 등급 분류
 - 세계 동물 보호 협회는 2014년과 2020년 세계 각국의 동물복지의 법제화, 정책, 인식 등 10개 지표에 따라 A부터 G까지 총 7단계로 분류
 - 말레이시아가 속한 ‘C’ 등급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며 한국은 ‘D’ 등급에 분류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유기묘·길고양이
 - 펫페어 동남아시아(Pet Fair South East Asia)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말레이시아 고양이는 약 500만 마리로 이 중 약 434만 마리가 유기묘·길고양이로 집계
 - 말레이시아 동물 보호 협회 페르사투안 하이완 테르비아르(Persatuan Haiwan Terbiar Malaysia)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유기묘는 70% 증가
 - 말레이시아 동물 협회(Malaysian Animal Association)에 따르면 이동제한령(MCO)¹⁾ 기간 중 도시 외곽에 버려진 동물 숫자는 약 3배 증가
 - 코로나19 이후 고액의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
 - 전문가들은 유기 행위 적발과 처벌이 어려워 반려묘에 대한 인식을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

1) 이동제한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령한 국가 봉쇄령

정책 세부 내용

- 클랑 벨리 최초의 정부 유기묘 보호 기관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
 -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Taman Kuching Cyberjaya)은 클랑 벨리(Klang Valley)²⁾최초의 정부 운영 유기묘 보호 공원
 - 세팡시의회(Sepang Municipal Council)는 예산 43만 5,000 링깃(한화 약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유기묘 3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을 조성해 2023년 5월 18일 공식 개장
 - 세팡시의회가 운영 및 관리
 - 세팡시의회 보건부 직원 가운데 최소 3명이 공원의 위생과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
 - 세팡시의회가 개발한 정보 데이터 시스템 이-캣(e-Cats)에 구조한 유기묘의 이름, 수용 날짜, 기타 특이사항을 디지털 문서로 저장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기묘 관리
 - 유기묘는 건강 상태에 따라 4개 보호실에 수용 및 치료
 - 자원봉사자 참여한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검진·예방접종
 - 매주 일요일 제한된 시간 동안 유기묘는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시민들이 공원에서 유기묘와 시간을 보내고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구조-중성화-입양(Trap-Neuter-Return, TNR) 프로그램
 -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은 TNR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
 - 정해진 시간에 방문객은 유기묘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고양이의 성격을 파악한 뒤 입양 가능
 - 입양 희망자는 ① 고양이 이동장을 들고 공원 방문, ② 치료 및 백신 접종비인 150링깃(한화 약 43,000원)을 지불

정책 효과

- 시민들의 여가 공간이자 유기묘 보호 및 입양 지원 센터 역할
 - 공원과 유기묘 보호 및 입양 지원 센터를 연계
 - 시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공원에서 유기묘와 시간을 보내고 입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해 반려묘 입양 문제를 사회에 환기

2)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를 포함한 말레이시아의 수도권

- 민간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유기묘 보호 및 입양 지원
 - 민간 사설 보호소는 재정 및 시민 관심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한계를 지님
 -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은 세팡시의회의 재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 하에 유기묘 보호 및 입양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민간 보호소보다 쉽게 협업을 확대해 말레이시아 고양이 클럽(Kelab Kucing Malaysia) 등 관련 단체와 홍보 부스 운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그림] 사이버자야 고양이 공원 (출처: rileklah)

<https://www.therakyatpost.com/trpbm/2023/07/27/taman-kucing-di-cyberjaya-jadi-tumpuan-orang-ramai-boleh-lawat-adopt-kucing-jalanan-yang-diselamatkan/>

<https://www.thestar.com.my/metro/metro-news/2023/05/05/stray-cats-getsecond-chance>

<https://www.petfair-sea.com/asia-markets/southeast-asia-pet-market/malaysia-pet-market/>

https://rileklah.com/travel/taman-kucing-tasik-cyberjaya-syurga-buat-pencinta-kucing#google_vignette

<https://www.therakyatpost.com/fun/2023/03/19/taman-kucing-cyberjaya-where-stray-cats-are-cared-for-and-find-forever-homes/>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0/12/26/covid-19-sees-rise-in-stray-animal-numbers-and-drop-in-donations/>

<https://spca-penang.net/life-as-a-stray/>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0/07/13/how-many-more-pets-will-be-dumped-after-mco/>

<https://www.malaysiakini.com/news/521703>

<https://api.worldanimalprotection.org/>

<https://facebook.com/p/Taman-Kucing-Cyberjaya-Sepang-100091504625928/>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전기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못 싣게 하는 이유

중국 충칭시 / 환경·안전

충칭시는 3월 1일부터 개정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을 시행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엘리베이터에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을 가지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것. 이유는 실내에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 2023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는 2만 1,000여 건에 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기술사양」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 개정 시행

- 지난 3월 1일부터 충칭시 정부는 「충칭시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重慶市電梯安全管理辦法)」이라는 지방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은 2016년 1월에 처음 시행됐는데, 그 뒤 8년 동안 충칭시 전역에서 엘리베이터가 해마다 10%씩 16만 대가 늘어나서 2023년 말에는 26만 9,000여 대에 달하는 엄청난 환경 변화가 일어남. 게다가 여러 변화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개정이 요구됨
 -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충칭시 사법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11월에는 충칭시 상무위원회가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번에 시행 단계에 이르게 됨

「엘리베이터 안전관리판법」이 처음 시행하는 내용

- 이번 개정안에는 중국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엘리베이터에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을 가지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을 싣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 자전거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 전기 자전거는 중국에서 2023년 말 현재 3억 2,000만 대가 운행 중일 정도로 대중화됨. 하지만 아직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의 국가표준이 없는 상황이라 다양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실내에서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 전기 자전거는 외부에 전용 충전시설이 많지 않기에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은 보통 엘리베이터에 싣고 집으로 가져와서 충전함. 이 과정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거나 집 안이나 복도에 놓은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 폭발 사고가 나기도 함
-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가 폭발하여 주민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함
- 2023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는 2만 1,000여 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 17.4%가 늘어난 수치임
- 전기 오토바이는 오래전부터 건물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못 싣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고, 외부에 있는 전기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함께 사용하도록 배터리가 표준화되어 있어 실내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전동 킥보드는 중국에서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라서, 실내에서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일어난 사례는 거의 없음



[그림] 구형 아파트에 새로 부설한 엘리베이터 (출처: 충칭라디오방송)

시행이 요구되는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의 국가표준

-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의 국가표준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
-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의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여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기술 사양(電動自行車用充電器安全技術要求)」을 마련하여 올해 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
 - 전기 자전거의 국가표준이 제정되어야 국가 차원에서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의 안전성과 품질 감독에 대한 기술적 공백이 메워질 수 있기 때문
 -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기술사양」이 발효되면 국가표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중국에서 생산, 판매, 수입,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지금과 같은 화재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전기 자전거를 위한 전용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전기 자전거용 배터리의 국가표준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496623

https://www.cqcb.com/yukuaibao/2024-02-28/5512738_pc.html

http://www.cq.gov.cn/zwgk/zfxxgkml/zcjd_120614/mtsj/202402/t20240228_12971447.html

http://wap.cq.gov.cn/zwgk/zfxxgkml/szfwj/zfgz/zfgz/202312/t20231222_12735338.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문화유산과 과학의 만남을 통한 도심공원의 재탄생

스페인 바르셀로나 / 도시계획·주택

바르셀로나의 시우타데야 공원은 1888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한 문화 유적지이자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지 공간임. 최근 바르셀로나시는 시우타데야 공원(Parc de la Ciutadella) 개선 계획의 하나로 공원과 그 주변 지역을 유럽의 지식 보급과 연구, 혁신의 선도적인 노드로 바꾸기 위하여 과학, 문화 및 도시계획 프로젝트 ‘지식의 성채(Ciutadella del Coneixement)’ 프로젝트를 진행

배경

○ 시우타데야 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 시우타데야 공원은 1951년 국가 관심 문화재로 지정된 기념물이자 옛 도시 성벽에서 요새로, 요새에서 1888년 만국 박람회장으로, 박람회장에서 공원으로 변해 온 바르셀로나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중첩되어 있는 도시 중심부의 상징적인 녹지 공간임. 군사 요새를 산업과 진보의 공간으로 구체화한 상징적인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주요 행사인 1888년 만국 박람회의 개최 장소
- 시우타데야 공원에는 1882년 개관한 바르셀로나 최초의 공공 박물관인 마르토렐 지질학 박물관을 비롯하여, 1888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세워진 동물학 박물관과 1892년 개장한 동물원이 위치
- 시우타데야 공원은 바르셀로나에서 주민 1인당 녹지 면적이 가장 적은 두 지역인 시우타트 베야(Ciutat Vella) 지역과 에이샴플라(Eixample) 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산책, 스포츠 활동,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중요한 공간
- 시우타데야 공원은 카탈루냐주 전체에서 가장 큰 물총새 공동 서식지이자 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도심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
- 시우타데야 공원은 투수성, 온도 조절, 공기질 개선 등 도시에서 가장 생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

○ 시우타데야 공원의 쇠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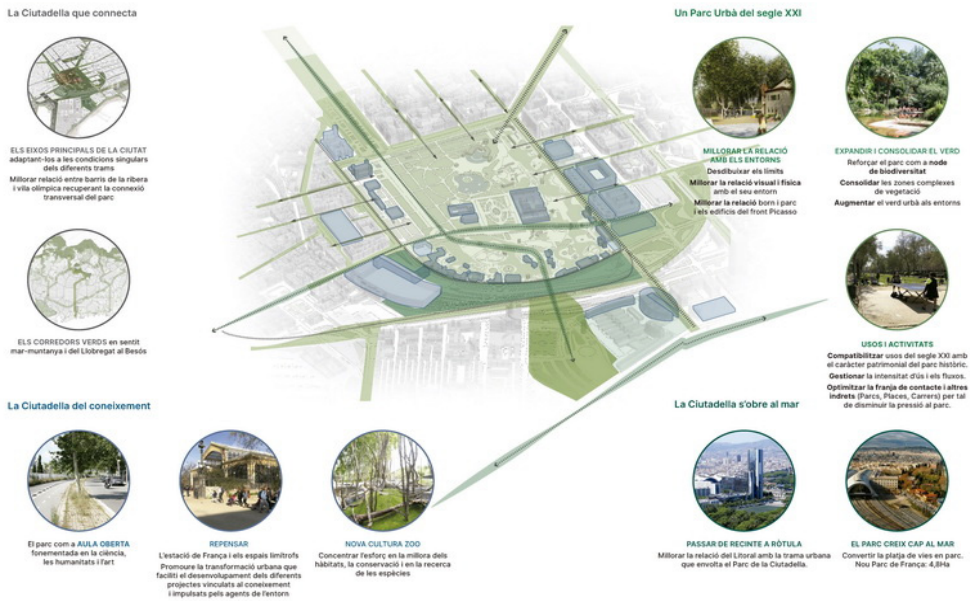
- 1888년 박람회 이후 제2공화국 개혁주의 시대까지 시우타데야 공원은 쇠퇴기를 겪었으며, 공원의 오래된 무기고가 1932년 카탈루냐 의회의 의석이 될 때까지 이전의 화려함을 되찾지 못함

- 프랑크 독재 시절에 기능을 상실했으며, 1980년이 되어서야 카탈루냐 주정부가 재설립되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서, 공원이 재탄생되어 현재는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자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
- 시우타데야 공원 개선의 필요성
 - 주민의 수요가 높고 공원 용도가 다양하여 일상생활에서 특히 그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민의 생활 공간
 - 사회 변화에 따른 공간의 용도 변화와 공원 개념의 변화가 필요
 - 공원의 유지 관리와 유산 보존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종합 개선 계획이 필요
-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Nou Pla director per al parc de la Ciutadella) 수립
 - 2018년 공원의 녹지 및 인프라 개선, 공원과 주변 지역의 접근성 및 연결성 개선, 과학·문화·지식 관련한 새로운 용도 제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원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 수립.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 개선의 첫 번째 단계가 실행되었고, 2023년 7월 두 번째 단계 시작
- 과학 진흥을 위한 바르셀로나 과학 계획(Pla Barcelona Ciència 2020-2023)
 - 바르셀로나는 유럽 과학 연구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과학 계획을 수립, 시우타데야 공원의 옛 수산시장 대지를 중심으로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 제안. 이 프로젝트는 연구 전용 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도시가 직면한 도시 문제에 혁신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에 도시의 과학 연구 종사자가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

목적

- 시우타데야 공원의 기원(1888년 만국 박람회)과 오늘날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자산(대학, 박물관, 연구센터, 재단, 회사 등)을 바탕으로 공원의 물리적 형태를 개선할 뿐 아니라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정의하고자 함. 아울러 공원의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내고자 함

Proposta estratègica per al Parc de la Ciutadella



[그림 1] 시우타데야 공원 개선 전략 (출처: Barcelona Regional, Pla Director Parc de Ciutadella Propuesta)

내용

-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의 4개 축
 - 공원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개선
 - 공원을 횡단하는 연결을 복원하여 공원의 양쪽 옆에 있는 두 지역 간의 연결성 개선
 - 공원과 해변의 연결을 형성하여 동쪽 바다와 서쪽 산을 연결하는 녹색축 및 남쪽과 북쪽의 두 개 강을 연결하는 녹색축 완성
 - 과학과 지식의 공원
 - 과학적, 예술적, 인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열린 교실로서의 공원
 - 공원 남쪽에 위치한 프란차(Franca) 기차역과 주변 지역을 지역 주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식 중심의 프로젝트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
 - 서식지 개선과 종의 보전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동물원 문화 생성
 - 21세기의 새로운 수요와 용도에 맞게 개선되어 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도시공원
 -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물리적 관계 개선(침투성)
 - 녹지 확장과 통합으로 공원을 생물 다양성의 노드로 강화

-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공원 용도를 공원의 역사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활용
- 바다를 향해 열린 공원
 - 해안선과 공원 주변 도시 조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닫힌 공간에서 연결되어 열린 공간으로 변화
 - 해변 도로를 공원으로 바꿈으로써 해변 방향으로 공원 면적 확장



[그림 2] 지식의 성채 지도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La Ciutadella del Coneixement)

1. 옛 수산시장
2.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생명과학센터
3. 유산적 가치나 과학적 가치를 지닌 시설 축
 - 3.1 삼룡의 성
 - 3.2 온실
 - 3.3 마르토렐 지질학박물관
 - 3.4 식물원
4. 바르셀로나 시립중양도서관
5. 동물원 전락 계획

-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 중 하나인 지식의 성채 조성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옛 수산시장 부지에 종합 연구단지 조성
 - 46,000㎡ 면적의 연구단지로 유럽 과학 지식, 연구 혁신 및 고등 교육의 주요 노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
 - 바르셀로나 과학기술연구소(BIST), 폼페우파브라대학교 행성복지연구혁신센터, 폼페우파브라대학교와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C) 공동연구센터인 진화생물학 연구소 등 총 3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
 - 3개 건물 아래에는 지자체 이동성 관련 공기업(B:SM)이 공용 주차장 네트워크에 통합될 새로운 7,000㎡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관리할 예정

- 오래된 자동차국 건물에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CSIC) 생명과학센터 건립
 - 바르셀로나 생물의학연구소(IIBB-CSIC)와 바르셀로나 분자생물학연구소 (IBMB-CSIC)를 지식의 성채 부지 내 자동차국 건물로 이전할 예정
 - 현재는 바르셀로나 대학병원(Hospital Clinic) 및 대학가에 위치한 연구단지 (Parc Cientific)에 위치
 - 공원 남쪽의 프란차(Franca) 기차역 옆에 바르셀로나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 마르토렐 지질학박물관, 삼룡의 성(구 자연과학박물관), 온실(Hivernacle) 및 식물원(Umbracle) 등 유산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가 높은 시설로 구성된 축을 통합
 - 생물 다양성 보존, 야생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 분야에서 동물원의 과학 활동 장려·강화
- 지식의 성채 조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8~10년 내로 지식의 성채에 약 1,600명의 연구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유럽의 과학 지식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
 - 정밀의학, 생물다양성, 진화생물학, 행성복지, 분자생물학, 생물의학, 자연계의 다양성과 진화, 동물복지 및 토종동물군 관리와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 장려



[그림 3] 시우타데아 공원을 통해 완성될 도시의 녹색축

(출처: Barcelona Regional, Pla Director Parc de Ciutadella Propuesta)

시사점

- 시우타데야 공원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심 공원
-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 및 지식의 성채 조성 프로젝트는 도심 공원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공원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용도 부여 등 21세기 도심 공원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녹지 개선 사례

Ajuntament de Barcelona, La Ciutadella del Coneixement, <https://www.barcelona.cat/ca/coneixbcn/la-ciutadella-del-coneixement>

Ajuntament de Barcelona, La Ciutadella del Coneixement avança amb la col·locació de la primera pedra del complex de recerca del Mercat del Peix, 2023.01.12,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2023/01/12/la-ciutadella-del-coneixement-avanca-amb-la-collocacio-de-la-primera-pedra-del-complex-de-recerca-del-mercat-del-peix/>

Departament de Recerca i Universitats de Generalitat de Catalunya, S'impulsa la creació de la Ciutadella del Coneixement per impulsar un nou espai de recerca a Barcelona, 2019.5.28, <https://recercauniversitats.gencat.cat/ca/de-talls/noticia/Simpulsa-la-creacio-de-la-Ciutadella-del-Coneixement-per-impulsar-un-nou-espai-de-recerca-a-Barcelona>

Departament de Economia, Hacienda, Promoción Económica y Turismo de Ajuntament de Barcelona, Pla Barcelona a Ciència 2020–2023, <https://www.barcelona.cat/barcelonaciencia/es/quienes-somos/una-ciudad-de-ciencia-y-conocimiento/plan-barcelona-ciencia-2020-2023>

Ajuntament de Barcelona, Pla litoral-barcelona mar de ciencia, <https://www.barcelona.cat/plalitoral/es/barcelona-mar-de-ciencia>

Departament de Economia, Hacienda, Promoción Económica y Turismo de Ajuntament de Barcelona, La Ciutadella del Coneixement, <https://www.barcelona.cat/barcelonaciencia/es/ciencia-en-la-ciudad/la-ciencia-y-la-ciudadania/la-ciutadella-del-conocimiento>

Ajuntament de Barcelona, La transformació del parc, <https://www.barcelona.cat/ca/coneixbcn/ciutadelladelconeixement/la-transformacio-del-parc>

Barcelona Regional, Pla Director Parc de Ciutadella Propuesta, 2018-현재, <https://www.bcnregional.com/treballs/pla-director-per-al-parc-de-la-ciutadella/>

Barcelona Regional, Nou Pla director per al parc de la Ciutadella-Pla d'actuacions Resum Executiu, 2018.4.3.-현재, https://www.bcnregional.com/wp-content/uploads/2023/08/AE03_CIUTADELLA_LW.pdf

CSIC, El CSIC i l'Ajuntament de Barcelona signen un protocol per a la construcció d'un edifici que acollirà dos instituts de recerca en salut, 2023.10.19, <https://delegacion.catalunya.csic.es/el-csic-i-lajuntament-de-barcelona-sig-nen-un-protocol-per-a-la-construccio-dun-edifici-que-acollira-dos-instituts-de-recerca-en-salut/?lang=ca>

세계도시동향 제571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4월 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